



고즈넉한 산사에서 더위 식혀볼까

‘ACC 글로벌 해설사’

4일까지 10명 내외 모집

한국불교문화사업단

7~8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무각사·대흥사·백양사 등 10곳

무더운 여름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이마의 땀을 식힌다. 고즈넉한 사찰의 경내는 은은한 선향의 향기가 그윽하다. 목탁 소리와 염불 소리는 도시의 소음과 일상의 분주함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지역 주요 사찰에서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무각사·연곡사·천은사·향일암·백양사·대흥사·대원사·송광사·신흥사·용흥사 등 10곳의 사찰이 참여한다.

각 사찰은 지역 특색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춤을 원하는 직장인,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모두를 위한 다채로운 테마(특별 체험형, 어린이 캠프형, 가족 체험형, 명상 집중형, 청춘 힐링형)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우선 특별 체험형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일정으로 구성됐다.

광주 무각사에서는 오는 8월 10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절친 템플 스텝’이 열린다. 불교놀이, 에어바운스 물놀이 등 신나는 활동을 통해 절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절친’이 되어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구례 연곡사에서는 ‘어찌 어찌 과학교실’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지리산 피아골

계곡을 탐방하고, 세포와 암, 면역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의 건강 세미나를 함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천은사에서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물놀이와 노고단 탐방 등이 어우러진 ‘천은사 summer’가 운영되며, 여수 향일암에서는 ‘나만의 DIY 염색’ 프로그램이 오는 28일부터 31일, 8월 4일부터 7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장성 백양사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백양아이 여름 명상 캠프’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놀고 명상을 체험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차분한 호흡 속에서 지혜롭고 고요한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해남 대흥사에서는 ‘차와 쉼, 다선일미’가 6월 29일부터 30일, 8월 2일부터 3일까지 두 차례 열린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사찰에 머물며 수행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 스님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고, 밤에는 반딧불이를 따라 걷는 달빛 산책까지 더해져 특별한 여름 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청춘 힐링형’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담양 용흥사에서는 8월 7~9일 대학생들을 위한 ‘2박 3일 너나들이 템플스테이’가 운영된다. 타종 체험, 모래 만다라 만들기, 편백숲 포행(걷기 명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연다. 해남 대흥사 템플스테이 장면. <광주일보DB>

을 끈다. 담양 용흥사에서는 8월 7~9일 대학생들을 위한 ‘2박 3일 너나들이 템플스테이’가 운영된다. 타종 체험, 모래 만다라 만들기, 편백숲 포행(걷기 명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명상 집중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보성 대원사에서는 ‘어린이왕자와 실타르타의 명상 여행’이, 순천 송광사에서는 ‘제52회 여름 수련

법회’가 열린다. 또 완도 신흥사에서는 ‘바다치유 명상 템플스테이’를 통해 탁 트인 바다 풍경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사찰별 상세 일정과 신청 방법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요한 여름, 산사의 숨결 속에서 떠나는 짧은 여행.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은 이들에게 이번 여름 템플스테이는 짧지만 의미있는 침묵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무등산 호랑이 나랑 놀자~

전통연희놀이연구소 ‘팔죽할멈과 호랑이’, 5~6일 학생교육문화회관

팔죽 할멈 앞으로 어슬렁 어슬렁 나타난 집채만한 호랑이! “어흥~ 할멈을 꼭꼭 잡아먹어야겠다”

할멈과 호랑이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익숙한 전래동화가 신명나는 탈춤과 판소리 등 전통연희로 다시 태어난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가 오는 5~6일 오후 4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팔죽할멈과 호랑이~호랑이 나랑 놀자’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2025 지역대표예술단체에 선정된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연작 시리즈 ‘발광불개-무등산호랑이 연대기’의 일환이다. 익숙한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탈춤, 인형극,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연희를 결합해 어린이와 가족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작품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팔죽 할멈이 동짓날까지 시간을 벌며 알밤·송곳·개똥·맷돌·자라 등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의 전래동화 ‘팔죽할멈과 호랑이’를 토대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공연에서는 호랑이와 팔죽할멈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내용으로 각색해 전한다.

무대는 관객 참여형으로 꾸며져 어린이들이 노래와 율동에 직접 참여하며 신명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통과 창작, 놀이와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 외에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고구려 벽화속 연희놀이, 무등산호랑이 큰기놀이, 무등산호랑이 키링만들기, 소원지 쓰기 등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즐거운



연희극 ‘팔죽할멈과 호랑이’가 오는 5~6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공연의 한 장면.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제공>

추억을 보낼 수 있을 예정이다.

무등산 호랑이 시리즈 공연은 오는 11월까지 ‘개똥이와 무등산 호랑이’(오는 26~27일), ‘발광불개-사방을 지키는 신’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 강미화 팀장은 “이번 공

연은 관객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지루할 틈이 없는 신명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 관객들이 나와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따뜻한 메시지를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국립광주박물관, 8월 11일

울해도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제36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오는 8월 11일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연다. 이를 위해 선착순 150명 초등학교생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기르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희망자는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8월 7일(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미술 분야의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이 창의성, 묘사력, 표현력 등을 위주로 심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더불어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대상은 으뜸상 3명, 버금상 6명, 솜씨상 등이 수여되며 결과는 오는 10월 1일 광주박물관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입상작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박물관 로비) 관람객에게 전시될 계획이다.

최흥선 관장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을 매개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비는 무료.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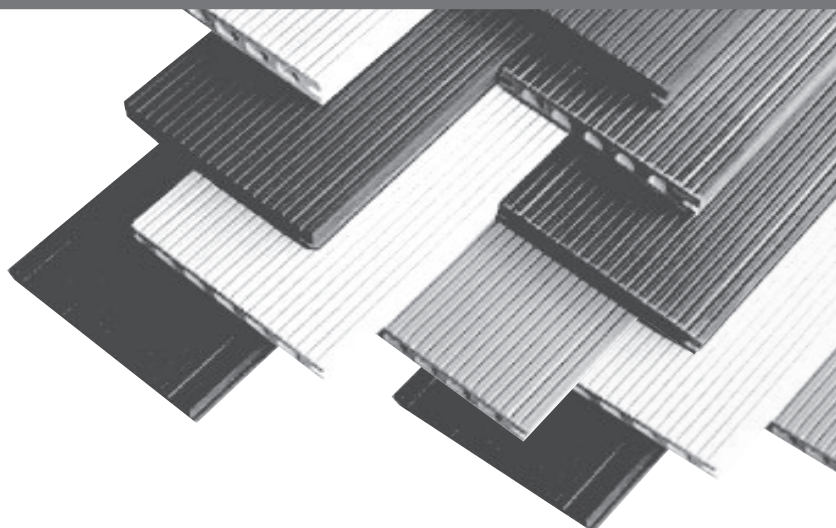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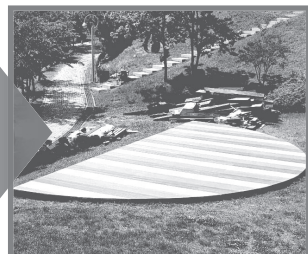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